

#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개발 현황

김세중\*

## 1. 머리말

먼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가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2005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를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특히 이번 학술회의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문법’ 발간 기념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국립국어원(2004년 11월 11일부터 국립국어연구원이 이름을 바꿈)은 1999년 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면서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중요한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서 편찬과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기초 어휘 선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 기초 어휘 선정 사업은 이미 끝이 나서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한국어 문법 편찬은 예정보다 늦어져서 금년 10월에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다. 문법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으로, 사전은 ‘외

---

\*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장

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 편-'으로 발간되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의 편찬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교사, 그리고 한국어 교재 편찬자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 애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는데 1년이 연장되어 2005년 10월에 간행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표준 문법 제정 기초 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초 자료 분석을 하고 집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는 <표준 문법서> 집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에 들어갔다. 또, 2002년에는 <표준 문법 사전> 집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 지침과 표제어 목록을 결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1차 표제어 목록 600여 개의 용법을 기술하였다. 2004년에는 2차 표제어 목록 600여 개에 대한 용법을 기술하고 한국어 문법 원고를 보완하였으며 2005년에 교정, 교열하여 출간하였다.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문법서 편찬은 이미 19세기부터 있었으나 주로 외국인들이 편찬한 것이었고, 우리 손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는 반세기가 지났으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려가 부족하였거나 대조언어학적 지식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했다. 또한 주로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질적, 양적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이 이 방면에 오랜 경험과 업적을 쌓은 분들의 힘을 빌려 국가적 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문법 편찬을 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권의 책에 대한 기획은 국립국어원이 하였지만, 집필은 한국어교육에 오래 종사해 오셨고 이 방면에 큰 성과와 업적을 쌓으신 몇 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였다. 김정숙, 박동호, 이병규, 이해영, 정희정, 최정순, 허용선 선생님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분들의 열정과 노고가 없었다면 한국어 문법과 사전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의 특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1과 2로 나누어 편찬되었다. 1은 체계 편이고 2는 용법 편이다. 1은 그야말로 문법서이고 2는 문법 형태나 굳어진 표현에 대한 용법을 설명하는 사전이다. 1만 있고 2가 없으면 개별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2만 있고 1이 없다면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없다. 1과 2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어의 문법을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문법서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법 1>에 대해 살펴하기로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학교 문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문법 교육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학교 문법의 교육 대상은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며 모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다. 이에 반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이거나 재외 동포들이다. 이들은 어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다. 내국인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데 반해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중인 이들이다. 내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있는 데 반해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도 없다. 요컨대 내국인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은 그런 지식이 없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바로 그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대상이 다르므로 교육의 목표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신장이 주된 목표이므로 의사소통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식은 교육이 내용이 되기 어렵다. 예컨대 문법사나 음운사 같은 국어사

에 대한 지식은 외국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육의 내용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의사소통 기능 신장을 위한 기반 지식 제공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라고 본 <한국어 문법 1>은 다시 6부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제1부는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 제2부는 문장, 제3부는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제4부는 단어, 제5부는 말의 소리, 제6부는 담화이다.

제1부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면서 기술 내용을 밝혔고, 한국어의 개괄적 특징과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부와 제3부가 문법의 핵심적 요소인데 제2부 '문장'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 문장 성분, 문장의 종류, 문장의 확대를 다루었고, 제3부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에서는 시제, 높임법, 부정법, 사동-피동 그리고 양태 표현을 다루었다. 제4부에서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과 각 품사의 세부적인 하위 분류 및 활용의 모습을 보였다. 제5부에서는 한국어의 말소리를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문장의 단위를 넘어서는 말과 글에서의 특징과 화행, 몸짓 언어 등까지 기술하였다.

학교 문법은 국어학적, 언어학적 기술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한국어 문법 1>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과 지식이 없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과는 다르게 문법을 기술한 부분이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높임법 체계는 학교 문법에서는 여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나 <한국어 문법 1>에서는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하계체와 하오체를 상대높임법 체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계체와 하오체의 사용 비중이 다른 네 등급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물론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하계체와 하오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

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초급, 중급의 학습자들에게는 여섯 등급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비중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아요/-어요', '-지요'는 '-아/-어', '-지'에 '요'가 합쳐진 형태이므로 종결어미라 할 수 없는데 한국어 교수-학습에서는 단일한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종결어미로 다루었다.

문장 확대를 보면, 이어진 문장을 대등적 연결과 종속적 연결로 나누는 것이 학교 문법의 처리 방식이지만 <한국어 문법 1>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대등적 연결과 종속적 연결의 구분이 의미상 뚜렷하지 않고 문법적 요소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은 문장을 설명할 때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제외해서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논란이 많은, 주어가 둘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도 학습자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였다. 즉, “토끼가 앞발이 짧다”와 같은 문장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법, 주체어+주어+서술어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어가 둘 있는 문장으로 설명한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서였다. 한국어 형용사 가운데 주어를 둘 이상 필요로 하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어 문법 1>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문법 설명에 필요한 단위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표현'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는 바람에'는 학교 문법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지 않는다. '바람'이 명사이고 '-는'은 관형형 어미이며 '에'는 명사 '바람'에 붙는 조사일 뿐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는 바람에' 용법은 '-어서'와 함께 배우면 유용한 지식이 아닐 수 없다. 연결

어미 ‘-어서’를 다루면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기 때문에’를 다룬 것도 같다. ‘(으)르 것 같다’, ‘-(으)르 것이다’ 등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1>에서는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부탁을 할 때에 명령문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어 주다’를 연결해야 한 다든지 하는 설명도 내국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해서 알아서 잘 쓰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다.

제13장은 양태를 다루고 있는데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보통 명사구나 동사구여서 양태를 문법적 범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양태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구체적인 언어 상황에서 써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따로 한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어 문법 1>에서는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에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문법 1>에서는 곳곳에서 모어의 간섭에서 비롯되는 오류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물론 모어의 간섭과는 무관한 오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는 설명을 곳곳에 해 놓고 있다. 일테면 ‘당신’이란 말을 자칫 아무 때나 쓸지 모르는데 부부 사이 외에는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기술을 함으로써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특정한 어휘나 어미가 쓰일 수 있는 앞뒤 문맥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수 관형사가 와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복잡한 제약이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어 문법 1>에서는 문법 형태의 의미나 기능뿐 아니라 그 문법 형태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선후배나 동료 관계처럼 친분이 있으나 공적인 관계에 있을 때 쓴다.”라든지 “회의나 연설, 발표, 보고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등과 같은 설명이

그것이다. 내국인들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잘 가려서 쓰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적절한 말을 못하기 쉽다.

<한국어 문법 1>에서는 학교 문법이나 학문 문법에서 쓰이는 말 중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은 받아들여 쓰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았다. '용언', '체언' 같은 말은 학교 문법에서 쓰는 말이지만 너무 추상적인 말로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여서 사용하지 않았다. 즉 '용언'은 '동사', '형용사'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기술하였다. '무정 명사', '유정 명사' 같은 말도 쓰지 않는 대신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 문법 1>은 외국인 교수, 학습자를 의식하여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전문 용어는 최대한 줄였다.

어떤 문법 현상에 대해 한국어에 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도 곳곳에서 시도하였다. 때로는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교 문법이 언어 내적인 규칙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데 반해서 <한국어 문법 1>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의도, 전략에 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담화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몸짓 언어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한국어 문법 2 - 용법 편>은 조사, 어미 등의 문법 형태뿐만 아니라 조사 간의 결합 및 어미 간의 결합, 조사·어미와 명사·동사와의 결합 형태 등의 문법적 표현까지 수록하였다. 이때의 문법적 표현은 순수하게 문법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의 단위로 묶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게 되다', '-게 만들다', '-는 마당에', '-는 물론', '-는 편이다',

‘-을 것이 아니라’ 등과 같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수록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문법적 관점에 충실해서 표제어를 추출할 경우에는 실제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빠지게 되어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미 연결체의 경우에도 자주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한국어 구어에 관해서 완벽에 가까울 만큼 철저히 기술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보면 표제어 다음에 핵심적인 주요 용법을 간략하게 보이고 이어서 조사인지 어미인지 아니면 그밖의 것인지를 각각 ‘조사’, ‘어미(연결)’, ‘어미(종결)’, ‘어미’, ‘표현’으로 밝혔으며 이어서 관련어란에 표제어와 유사한 뜻을 지닌 참고할 만한 표제어를 보였다. 이어서 형태 정보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였으며, 표제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문법 형태나 표현을 가표제어로 제시하였는데, 가표제어는 실제 사전의 위치에서 주요 용법만 간략히 보이고 용법 등은 보이지 않았다. 용법에서는 【 】 안에 표제어가 사용되는 특정한 문맥이나 상황을 보인 뒤 표제어의 뜻풀이를 하였고 예문을 제시한 뒤 다시 필요할 경우 예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결합 정보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형태론적, 화용론적, 통사론적 결합 제약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무엇이 준말일 경우 그 사실을 밝혔고, 발음 정보나 관용 표현도 제시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바른 문장과 틀린 문장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충·심화에서는 해당 표제어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포함해서 좀더 상세한 문법적 설명을 보였다.

###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의 활용 계획과 수정, 발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앞으로 이를 널리 활용토록 하는 일



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더 익숙하거나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소통의 도구로서 유용한 만큼 <한국어 문법>도 좋은 영어로 번역된다면 한국어가 앞으로 더욱 세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한국어 학습 수요는 여러 언어권에서 생겨나고 있다.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 학습자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해당 언어 학습자들은 더욱 쉽게 한국어 문법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 인구가 많은 나라부터 우선적으로 번역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에서의 한국어 수요가 높아서 이들 언어권부터 번역을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타이 등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은 데 반해 교재는 빈곤하여 한국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책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번역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이다.

책의 내용 또한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본다. 설명을 달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면 기술을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의 글말과 입말에 두루 적용되는 문법 사항을 기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글말에 주로 쓰인다든지, 입말에 주로 쓰인다든지 하는 해설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어의 글말과 입말이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장차

는 글말 문법, 입말 문법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말에서만 주로 쓰이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글말에서만 주로 쓰이는 활용 어미가 있기 때문이다. 별개의 책으로 낼 필요까지 없다 하더라도 입말과 글말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어 문법 2>의 표제어들은 사용 빈도가 크게 차이나는 말들이 서로 구별 없이 망라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자주 쓰이는 말과 아주 드물게만 쓰이는 말들을 몇 단계로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정보가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의 발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에서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이만한 노작이 나온 것은 그동안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며 그 성과가 바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낳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두 권의 책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정밀한 문법서와 문법형태 (또는 표현) 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거듭 감사하며, 널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한국어 문법, 국립국어원

\* 본 논문은 2005. 11. 30 투고되었으며, 2005. 12. 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7 심사가 종료되었음.

■ Abstract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of NIKL

Kim, Se Jung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NIKL) published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this year. The two books are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1 - system', and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2 - usage', respectively. Compilation of the books began in 2000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standard Korean grammar to the learners and teach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two books are complementary in that 'Korean Grammar 1' without 'Korean Grammar 2' is not useful because the meaning and usage of each grammatical expressions can not be grasped and the other way is the same. The writers thought that emphasis should be put on improving communicative ability in the education of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learners who have no intuition and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they described the Korean grammar in many points differently from Korean school grammar for the Koreans. And explanations on the grammatical issues were given in contrast with the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french, etc. In the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terminology is avoided if possible and the explanations on the error which foreign learners tend to make in speaking Korean are given. In due course, the two books wi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other languages for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orldwide.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grammar,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